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오 종 록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고등학생을 위한 조선중기 정치사
교육연구
- 17세기를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이 영 일

고등학생을 위한 조선중기 정치사
교육연구
-17세기를 중심으로-

오종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이 영 일

인 준 서

이영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고등학생을 위한 조선중기 정치사 교육연구 -17세기를 중심으로-

교과서는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구조화한 교수 및 학습활동의 기본 도서이다. 교과서가 다른 학술 서적이나 대중도서 등과 다른 점은 저자의 의사가 아니라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제작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획일화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교과서는 역사적 지식 체계를 쉽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편집하여 만든 것으로서, 교육현장에서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짧은 시간 내에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매우 유용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과서가 아닌 다른 대체자원을 찾는 것보다 주어진 교과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17세기정치를 이끈 주요 사건 내지 쟁점인 인조반정, 북벌론, 예송논쟁을 중심으로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서술을 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 서술개선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17세기 정치 중 인조~현종까지가 비교적 서인과 남인의 공론이 잘 지켜졌다는 긍정적인 시대라고 볼 때, 인조반정은 그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고 예송논쟁은 그 공론의 중심에 있었던 대표적인 쟁점이었다. 그리고 북벌론은 호란에 의해 일정부분 퇴색되었던 친명배금이라는 인조반정의 명분을 지키고자 시도했던 것으로 의미가 있다.

우선 7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인조반정, 북벌론, 예송논쟁의 서술 체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치사에서 사건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이를 소홀이 다루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 사건 들은 하나의 주제아래 묶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으로 인조반정, 북벌론, 예송논쟁에 대한 현 단계까지의 연구 성과를 기

초로 하여 교과서 서술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이들 내용을 각각 살펴보면 대체로 단순한 사실만 나열하여 역사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역사교육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교과서 서술이 하나의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보여 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족한 서술을 보였다. 이에 대한 서술개선은 종합적인 서술을 지향하고 역사적 사고력과 설득력 있는 내용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즉 흩어져 있던 내용을 하나의 주제아래 묶어 서술했고, 역사적사고력을 위해 인과관계적인 서술을 지향했으며, <생각해봅시다!!>라는 것을 만들어 학생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설득력 있는 내용구성을 위해 최신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한 시대에 허용되는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들은 그 시대를 아우르는 공통된 시대적 의미와 성격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건의 인과관계, 서로간의 관련성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사가 전근대사회에서 그 시대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때 사건은 그 중심이기 때문에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려면 우선 국사교과서의 서술이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고 그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단순히 이러한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각 개별 사건들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련성,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머리말	1
II. 현행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서술체제와 내용	5
III. 현행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서술내용 분석	
1. 인조반정	10
2. 북벌론	15
3. 예송논쟁	19
IV. 연구 성과에 의한 교과서 서술내용의 보완	
1. 인조반정	26
2. 북벌론	29
3. 예송논쟁	32
V. 맺음말	35

참고문헌

ABSTRACT

I. 머리말

교과서는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구조화한 교수 및 학습활동의 기본 도서이다. 교과서가 다른 학술 서적이거나 대중도서 등과 다른 점은 저자의 의사가 아니라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제작된다는 것이다.¹⁾ 그래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획일화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교과서는 역사적 지식 체계를 쉽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편집하여 만든 것으로, 교육현장에서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짧은 시간 내에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매우 유용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교과서가 아닌 다른 대체자원을 찾는 것 보다 주어진 교과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종래에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서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한 사실만 나열하여 역사적 사고력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역사교육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점이었다. 현행 7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전 6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비해 다양한 자료를 수록하였지만 여전히 본문 내용이 단순한 사실을 열거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서술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국사교과서의 서술내용은 역사의 내재적 가치나 교육적 가치에 의해 정선되고, 학계의 일반적인 정설이나 집필자 개인의 역사관 등 가변적인 요인들에 의해 선택된다.²⁾ 따라서 국사 교과서의 내용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하나의 해석으로서 설명되어야 한다. 때문에 국사 교과서의 서술의도가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서술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지적된 문제점을 염두에

1) 정선영 외 3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7, 145쪽.

2) 최상훈 외 3인,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 함께, 2009, 77쪽.

두고, 현 단계까지의 본 논문이 주제로 삼은 대상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현행 7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서술내용을 분석한 뒤 서술개선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 연구의 주제로는 조선중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정치를 선정하였다. 17세기 정치를 주제로 정한 이유에는 우선 조선시대의 정치사를 당파싸움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시대의 일본인 학자들의 인식을, 70년대 말 이태진의 연구 등에 의해서 공론을 통한 정치라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그리고 사상이 정치와 결합하여 현종시기 예송논쟁과 같은 독특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했던 시대라는 점이 주목되기 때문이다.

17세기 정치는 16세기에 중앙정계를 장악한 사림세력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 대립하다가 광해군시기 대북파가 독주한 과도기를 거쳐 인조 때에 이르러 서인과 남인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비판을 수용하는 정치형태로 자리 잡은 것으로 설명된다. 바로 이러한 인식 때문에 17세기 정치를 ‘붕당정치’라고 부른다. ‘붕당정치’라는 개념은 1970년대 말 이태진에 의해서 처음 제시되었다. 우리나라 근대 사학이 출발한 시기인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학자들에 의해 타율성론·정체성론에 입각하여 부정적인 관점아래 ‘당쟁’으로서 17세기 정치사가 설명되었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서 내재적발전론에 입각한 긍정적인 관점아래 ‘붕당정치론’이 대두한 것이었다. 그는 붕당정치를 붕당간의 공론에 주목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는 것이었으며, 17세기 정치사에 대한 후속연구의 토대를 이루었다.

한편 역사교육에서 17세기 정치사를 주제로 한 교과서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성과로는 이재철과 김돈의 연구가 있다.

이재철은 5,6차 고교교과서의 서술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교과서는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적극 반영하여 내용과 체제 면에서 이전 교과서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서술체제와 붕당정치론의 내용, 연구 성과의 수용에 대한 문

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즉, 상·하권 서술체제의 분리에 따른 당쟁론과 붕당정치론 내용이 뒤섞여있다는 점, 붕당정치론의 의미의 지나친 확대해석, 비변사, 예송, 붕당의 성격 등에 대한 학계 연구 성과의 반영 문제 등을 설명했다.³⁾

김돈은 조선후기 당쟁론에 대한 연구 성과가 검인정 단계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와 1974년에 최초로 간행된 국정교과서에 각각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검인정교과서는 다양한 입장이 반영되어 있어서, 단지 하나의 입장만 반영한 국정교과서에 비해 당쟁사 서술의 연구시각에 관한 훨씬 진일보한 여러 가지 양상의 서술 체제를 보인다고 했다.⁴⁾ 그는 2003년 발표한 연구에서, 7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의 조선시대정치사 관련 서술 내용을 고찰하여, 17세기 정치사와 관련하여서는 사림정치의 용어문제와 붕당정치에 대한 단정적인 서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⁵⁾

이 밖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도 많이 제출되었는데, 대체로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교과서 서술변화와 특징, 학계의 연구 성과의 반영여부가 중심이었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집필자의 관점, 학계의 일반적인 연구 성향에 따라 교과서 서술이 변화하였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데 현행교육과정인 7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 서술 분석이 대부분 ‘붕당정치’라는 정치형태 및 전개과정에 대한 현 단계까지의 연구 성과의 반영여부정도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17세기를 이끈 주요 사건이나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교과서 서술 분석도 부족한 편이었다.

정치사가 전근대사회에서 그 시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건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역사적 사건은 정치사에서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하며, 이러한 사건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 것인가를 고

3) 이재철, 「조선 후기 정치사의 연구동향과 고교 국사교과서의 서술: 5~6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67권, 1998.

4) 김돈, 「조선후기 당쟁사 연구현황과 국사교과서의 서술방식」, 『역사교육』 제 39권, 1986.

5) 김돈, 「조선시대 정치사연구와 국사교육」, 『역사교육』 제 85권, 2003.

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7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⁶⁾에 나타난 17세기 정치사 내의 주요 사건과 쟁점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 것 인지를 고민하면서 기존 국사 교과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서술개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7세기의 주요 사건과 쟁점으로 인조반정, 호란, 북벌론, 예송논쟁, 환국 등을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인조반정, 북벌론, 예송논쟁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한다. 17세기 정치 중 인조~현종까지가 비교적 서인과 남인의 공론이 잘 지켜졌다는 긍정적인 시대라고 볼 때, 인조반정은 그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고 예송논쟁은 그 공론의 중심에 있었던 대표적인 쟁점이었다. 그리고 북벌론은 호란에 의해 일정부분 퇴색되었던 친명배금이라는 인조반정의 명분을 지키고자 시도했던 것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선정한 17세기 주요 사건과 쟁점을 중심으로 현 단계까지의 연구 성과가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구체적인 서술개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6) 교과서는 2002년 초판과 2006년2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그 이유는 근현대사가 보장됨에 따라 그 내용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2년 초판을 초판, 2006년2판을 2판으로 하여 서술 하도록 하겠다.

II. 현행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서술의 체제와 내용

인조반정은 ‘Ⅲ. 통치구조와 정치활동’ 과 ‘Ⅵ. 민족문화의 발달’단원에 수록해 놓았다. 전자는 대체로 정국을 주도하는 세력들에 의해 나타나는 정치적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후자는 정국을 주도하는 세력들의 성향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Ⅲ. 통치구조와 정치활동’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인조반정이 초판에서 ‘3. 근세의 정치’에서 다루었던 것이 2판에서는 ‘4. 근대 태동기의 정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서술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서인과 남인이 비교적 공론이 잘 지켜진 시대’라는 긍정적인 인식의 출발점으로서 인조반정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인조반정과 관련하여 광해군시대의 정치는 수록단원에 보이듯이 외교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광해군의 업적이 내정보다 외교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1> 인조반정 수록 단원

2002년 초판	2006년 2판
<p>Ⅲ 통치구조와 정치활동</p> <p>3. 근세의 정치</p> <p>1) 근세의 세계</p> <p>2) 근세사회의 성립</p> <p>3) 통치체제의 정비</p> <p>4)사림의 대두와 붕당정치</p> <p>- 훈구와 사림</p> <p>- 사림의 정치적 성장</p> <p>- 붕당의 출현</p> <p>- 붕당정치의 전개</p> <p>- 붕당정치의 성격</p>	<p>Ⅲ 통치구조와 정치활동</p> <p>3. 근세의 정치</p> <p>1) 근세의 세계</p> <p>2) 근세사회의 성립</p> <p>3) 통치체제의 정비</p> <p>4) 사림의 대두와 붕당정치</p> <p>5) 조선초기의 대외관계</p> <p>6) 양난의 극복</p> <p>- 왜군의 침략</p> <p>- 수군과 의병의 승리</p> <p>- 전란의 극복과 영향</p>

<p>5) 조선초기의 대외관계</p> <p>6) 양난의 극복과 대청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군의 침략 - 수군과 의병의 승리 - 전란 극복과 영향 <p>- 광해군의 중립 외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란의 발발과 전개 - 북벌운동의 전개 <p>VI. 민족문화의 발달</p> <p>3. 근세의 문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족문화의 융성 <p>2) 성리학의 발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리학의 정착 - 성리학의 융성 <p>- 학파의 형성과 대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학의 발달 3) 불교와 민간신앙 4) 과학기술의 발달 5) 문학과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해군의 중립외교 - 호란과 북벌운동 <p>4. 근대 태동기의 정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대의 세계 2) 통치체제의 변화 <p>3) 봉당정치의 전개와 탕평정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당정치의 전개 - 봉당정치의 변질과 탕평론의 대두 -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정치질서의 변화 5) 대외관계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과의 관계 - 일본과의 관계 <p>VI. 민족문화의 발달</p> <p>3. 근세의 문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족문화의 융성 <p>2) 성리학의 발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리학의 정착 - 성리학의 융성 <p>- 학파의 형성과 예학의 발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불교와 민간신앙 4) 과학기술의 발달 5) 건축과 예술
--	---

북벌론은 초판에서 'Ⅲ. 통치구조와 정치활동'의 '호란의 발발과 전개'와 '북벌운동의 전개'라는 부분에서 다루었다. '호란의 발발과 전개'부분에서는 북벌론이 제기된 이유를 간단히 서술하였고 '북벌운동의 전개'는 북벌론의 내용을 다루었다. 반면에 2판은 'Ⅲ. 통치구조와 정치활동'의 '호란의 발발과 북벌운동'과 '청과의 관계'에서 서술하고 있다. '호란의 발발과 북벌운동'에서는 간단히 북벌론이 전개되었다고만 서술하였고, '청과의 관계'부분에 북벌론의 구체

적인 내용을 담았다.

<표2> 북벌론 수록 단위

2002년 초판	2006년 2판
<p>Ⅲ 통치구조와 정치활동</p> <p>3. 근세의 정치</p> <p>1) 근세의 세계</p> <p>2) 근세사회의 성립</p> <p>3) 통치체제의 정비</p> <p>4) 사림의 대두와 붕당정치</p> <p>5) 조선초기의 대외관계</p> <p>6) 양난의 극복과 대청관계</p> <p>- 왜군의 침략</p> <p>- 수군과 의병의 승리</p> <p>- 전란 극복과 영향</p> <p>- 광해군의 중립 외교</p> <p>- 호란의 발발과 전개</p> <p>- 북벌운동의 전개</p>	<p>Ⅲ 통치구조와 정치활동</p> <p>3. 근세의 정치</p> <p>1) 근세의 세계</p> <p>2) 근세사회의 성립</p> <p>3) 통치체제의 정비</p> <p>4) 사림의 대두와 붕당정치</p> <p>5) 조선초기의 대외관계</p> <p>6) 양난의 극복</p> <p>- 왜군의 침략</p> <p>- 수군과 의병의 승리</p> <p>- 전란의 극복과 영향</p> <p>- 광해군의 중립외교</p> <p>- 호란과 북벌운동</p> <p>4. 근대 대동기의 정치</p> <p>1) 근대의 세계</p> <p>2) 통치체제의 변화</p> <p>3) 붕당정치의 전개와 탕평정치</p> <p>4) 정치질서의 변화</p> <p>5) 대외관계의 변화</p> <p>- 청과의 관계</p> <p>- 일본과의 관계</p>

예송논쟁은 정치와 사상적인 측면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교과서에 서도 ‘Ⅲ. 통치구조와 정치활동’ 과 ‘Ⅵ. 민족문화의 발달’ 단원에 수록되고 있다.

‘Ⅲ. 통치구조와 정치활동’에서 예송논쟁의 전개과정에 따른 세력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반면, ‘Ⅵ. 민족문화의 발달’ 단원에서는 17세기 예학의 발달이 예송논쟁으로 이어졌다고 서술하고 있다.

예송논쟁도 인조반정과 같이 'Ⅲ. 통치구조와 정치활동' 부분에서 2판은 초판과 다르게 '4. 근대 태동기의 정치'에서 서술하고 있다.

<표3> 예송논쟁 수록 단위

2002년 초판	2006년 2판
<p>Ⅲ 통치구조와 정치활동</p> <p>3. 근세의 정치</p> <p>1) 근세의 세계</p> <p>2) 근세사회의 성립</p> <p>3) 통치체제의 정비</p> <p>4) 사람의 대두와 봉당정치</p> <p>- 훈구와 사람</p> <p>- 사람의 정치적 성장</p> <p>- 봉당의 출현</p> <p>- <u>봉당정치의 전개</u></p> <p>- 봉당정치의 성격</p> <p>5) 조선초기의 대외관계</p> <p>6) 양난의 극복과 대청관계</p> <p>VI. 민족문화의 발달</p> <p>3. 근세의 문화</p> <p>1) 민족문화의 융성</p> <p>2) 성리학의 발달</p> <p>- 성리학의 정착</p> <p>- 성리학의 융성</p> <p>- 학파의 형성과 대립</p> <p>- <u>예학의 발달</u></p> <p>3) 불교와 민간신앙</p> <p>4) 과학기술의 발달</p> <p>5) 문학과 예술</p>	<p>Ⅲ 통치구조와 정치활동</p> <p>3. 근세의 정치</p> <p>1) 근세의 세계</p> <p>2) 근세사회의 성립</p> <p>3) 통치체제의 정비</p> <p>4) 사람의 대두와 봉당정치</p> <p>5) 조선초기의 대외관계</p> <p>6) 양난의 극복</p> <p>4. 근대 태동기의 정치</p> <p>1) 근대의 세계</p> <p>2) 통치체제의 변화</p> <p>3) 봉당정치의 전개와 탕평정치</p> <p>- <u>봉당정치의 전개</u></p> <p>- 봉당정치의 변질과 탕평론의 대두</p> <p>-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p> <p>4) 정치질서의 변화</p> <p>5) 대외관계의 변화</p> <p>VI. 민족문화의 발달</p> <p>3. 근세의 문화</p> <p>1) 민족문화의 융성</p> <p>2) 성리학의 발달</p> <p>- 성리학의 정착</p> <p>- 성리학의 융성</p> <p>- <u>학파의 형성과 예학의 발달</u></p> <p>3) 불교와 민간신앙</p> <p>4) 과학기술의 발달</p> <p>5) 건축과 예술</p>

이상으로 인조반정, 북벌론, 예송논쟁에 대한 현행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서술 체제를 살펴보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정치사에서 사건에 대한 서술 분량이 매우 적었다. 한 시대에 허용되는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들은 그 시대를 아우르는 공통된 시대적 의미와 성격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건의 인과관계, 서로간의 관련성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사가 전근대 사회에서 그 시대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때 사건은 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역사적 사건은 정치사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 져야 하므로 서술 분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둘째, 사건과 관련한 서술이 단순한 사실 또는 결과만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있었다. 역사적 사건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과서 서술 체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국사교과서에서는 사건에 대한 내용이 분류사 체제에 따라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주제 아래 묶어낼 필요가 있겠다.

Ⅲ.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서술내용 분석

1. 인조반정

인조반정은 1623년 능양군이 김류, 이귀 등의 서인세력에 힘입어 광해군을 내쫓고 새 임금인 인조로 즉위한 사건을 말한다. 인조반정이 성공함에 따라 광해군시대 정권을 장악했던 북인세력이 완전히 몰락하였고, 이를 대신하여 반정을 주도했던 서인세력들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 일부 남인세력들이 가담하여 정국을 이끌어갔지만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인조반정은 역사적으로 서인세력들이 조선 중·후기 정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바탕이 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인조반정 이후 정치 전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반정을 주도한 서인은 남인 일부와 연합하여 정국을 운영해 나갔다. 서인과 남인은 모두 학파 적 결속을 확고히 한 정파들이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학문적 입장을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상호비판적인 공존체제를 이루어 나갔다.⁷⁾

교과서에서는 인조반정 이후 서인과 남인 일부가 연합하여 상호비판적인 공존체제를 이루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인조시기에 서인과 남인이 공존했다는 설명에 대해 냉소적인 설명이 많다.⁸⁾ 그렇지만 서

7) 2002년 초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106쪽, 2006년 2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99쪽

8) “인조대 이후도 상호 공존의 시대가 아니라 서인정권의 시대였다. 남인은 조금 참여했을 뿐이다. 남인들이 견제해서 수용하고, 견제하고 견제당한 사건들로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물음이 솔직한 표현이다. 반정 이후 서인과 남인의 관인비율이 6:4였다는 수치에 대해서도, “서인의 전권을 우려한 왕과 그 측근

인들이 반정을 성공한 데에는 복인들의 정권독점에 대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까닭으로 남인세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나름대로 서인과 남인의 공존이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존의 원리 안에서 정권의 주도권만은 서인세력들이 가졌고 남인은 상호비판이 가능할 정도로 서인과 대등한 세력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들 세력들이 공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의 득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인 '상호비판적인 공존체제'라는 서술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인조반정에 의해 쫓겨난 광해군은 결코 무능한 임금이 아니었다. 광해군은 왕위에 오른 뒤 왜란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어루만지고 무너져 내린 국가의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광해군 초반 붕당의 대립이 선조 때 보다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당색이 아닌 여러 인재를 고루 등용하여 정국을 안정시켜나갔다.⁹⁾ 그 다음 정국이 안정된 상황에서 양안과 호적을 새로 작성하여 국가의 통치기반인 토지와 백성을 다시 파악하고, 황폐한 토지를 복구하여 농업을 다시 일으키는 노력을 하였다.¹⁰⁾ 그리고 대동법을 일부지역에 시행하고 『동의보감』을 편찬하여 전쟁 후 기근과 질병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도왔다.¹¹⁾ 대외적으로는 당시 날로 급격히 성장하는 후금에 대해 인식하고 명과 후금 사이의 줄타기 외교를 진행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광해군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광해군의 업적은 다음과 같이 교과서에 반영되어있다.

<1-가> 광해군은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외교를 전개 하면서 전후 복구사업을 추진했다. ... 12)

세력의 견제책 및 정권안정을 위한 집권세력의 고차원적인 일종의 기미책이 서로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해야지 정치운영상의 어떤 논리에서 유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설명한다. (오수창, 「인조반정과 서인정권의 논란」, 『한국전근대사의 주요 쟁점』, 2008, 297쪽)

9) 한명기, 『광해군』, 역사비평사, 2007, 102~106쪽.

10) 오종록, 「광해군 시대의 교훈」, 『내일을 여는 역사』 5, 2001, 107쪽.

11) 한명기, 앞글, 116 ~118 쪽.

12) 2002년 초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106쪽.

<1-나> 광해군은 대내적으로 전쟁의 뒷수습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중립외교정책으로 대처하였다. 임진왜란 때 명의 도움을 받은 조선은 명의 후금 공격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새롭게 성장하는 후금과 적대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이에 광해군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1만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명을 지원 하게 하되,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명령하였다. 결국 조·명연합군은 후금군에게 패하였고 강홍립 등은 후금에 항복하였다. 이후에도 명의 원군 요청은 계속되었지만 광해군은 이를 적절히 거절하면서 후금과 친선을 꾀하는 중립적인 정책을 취하였다.¹³⁾

초판과 2판에서는 광해군의 주요업적을 국내정치에 비해 외교에 비중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외교가 역사적으로 커다란 업적을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국내정치가 너무 간략하게만 서술되어 있어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1-가>와 <1-나>에 광해군의 주요업적인 외교에 대해 ‘중립외교’라는 말로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광해군의 외교를 ‘중립외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¹⁴⁾ 설득력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중립’이란 말은 국어사전에서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처신함.’, ‘국가 사이의 분쟁이나 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중간 입장을 지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광해군의 외교는 ‘중립’을 지킨 것이었는가? 광해군의 외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다. 중립을 지킬 수 있다면 조선은 두 나라와 대등한 입장이 되어야 한다. 조선은 이들과 대등한 입장이 아니었고 지나치게 한쪽편만 들지 않는 교묘한 처사를 보일 뿐이었다. 학생들이 중립외교라고 했을 때 광해군 시대의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13) 2002년 초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113쪽, 2006년 2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92쪽.

14) 오종록, 앞글, 113쪽

왜곡 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립외교라는 말보다는 ‘실리외교’, ‘줄타기 외교’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인조반정의 명분은 무엇이였을까? 인조가 즉위 직후에 발표한 교서에는 인조반정의 명분으로 크게 두 방향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역적 이이첨이 광해군을 현혹하여 인목대비와 틈을 벌려 인륜을 해치는 사건을 일으켰고, 명이 배풀어준 ‘부모의 은혜’를 배반하여 예의 풍속과 삼강(三綱)을 쓸어버렸다는 것이다.¹⁵⁾ 이 밖에 왕대비가 발표한 교서에는 무리한 토목공사로 인한 백성들의 불만을 가져왔다는 설명이 추가가 되어 있다.

실제로 광해군이 가졌던 후궁의 둘째 아들에 대한 정통성의 문제로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는 폐륜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리한 궁궐공사를 진행하여 민심마저 잃게 되었다. 그리고 광해군 나름대로 당색이 아닌 여러 인재를 고루 등용하여 소수파였던 대북세력의 독주를 막아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대북의 영수인 정인홍은 광해군3년(1611)에 이른바 회퇴변척(晦退辨斥)¹⁶⁾ 을 감행하여 대북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시도는 남인 뿐 아니라 서인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정인홍은 유생으로서 자격을 부정당하는 처벌인 청금록에서 삭제를 당하고 경상좌도와 우도의 사림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분열되는 등 뜻한 바를 이룰 수 없었다.¹⁷⁾ 이어서 1613년 명문가의 서얼들이 은상(銀商)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이첨이 역모사건으로 조작하고 영창대군의 외조부인 김제남을 연루시킴으로써 영창대군과 함께 서인과 남인 중진 인사들을 대거 조정에서 몰아내어

15) 오수창, 앞글, 288쪽.

16) 1610년 김평필·정여창·조광조와 아울러 이언적·이황의 위패가 공자의 사당인 문묘에 모셔지게 되자, 정인홍이 상소하여 이언적과 이황을 비난한 사건을 말한다. 이에 성균관유생들은 정인홍의 이름을 선비명부인 『청금록』에서 지워버렸고, 전국곳곳에서 유생들의 반박상소가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인홍이 이언적과 이황을 비난하고 나선 데에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당시 문묘에 봉사된다는 것은 성리학의 학문과 도덕에서 큰 권위를 갖췄음을 의미했다. 북인의 정신적 지주인 조식이 제외되고 조식과 동갑이자 남인의 정신적 지주인 이황이 종사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북인이 남인에 비해 열세에 놓이리라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오종록, 앞글, 107쪽)

17) 오수창, 「봉당정치와 성립」, 『한국사30: 조선중기의 정치와 경제』, 1998. 71쪽.

대북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¹⁸⁾ 게다가 광해군의 외교정책은 자신의 지지 세력이었던 북인들마저 반대하는 등 당시 의리와 명분이 팽배했던 조선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에서는 인조반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는 어느 순간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인과관계에 따른 역사적 이해를 통하여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과서의 이러한 서술시도는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초판과 2판은 인조반정의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다른 서술을 보이고 있다.

<1-다> 광해군의 지지 세력인 북인은 서인과 남인 등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하려 하였다. 광해군도 불안정한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인목대비를 유폐하여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았고, 무리한 토목공사를 벌여 재정의 악화와 민심의 이탈을 불러왔다. 결국 광해군과 북인은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으로 몰락하였다. (1623)¹⁹⁾

<1-라> 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친명 배금정책을 추진하여 후금을 자극하였다. ...²⁰⁾

<1-마> 북인은 서인과 남인 등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하려 하였고, 결국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에 의해 몰락하였다.(1623)²¹⁾

<1-바> 광해군 때, 북인은 중립외교를 취하는 등 성리학적 의리명분론에 구애 받지 않았다. 이는 서인과 남인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²²⁾

18) 한명기, 앞글, 128-131쪽.

19) 2002년 초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106쪽.

20) 2002년 초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113쪽, 2006년 2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92쪽.

21) 2006년 2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99쪽

22) 2002년 초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294쪽, 2006년 2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292쪽.

<1-다>인 초판에서 인조반정의 원인으로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유폐한 점, 복인세력의 정권장악, 무리한 토목공사에 의한 제정악화와 민심이 탈, 광해군의 외교를 서술한데 반하여, <1-라>인 2판에서는 복인세력의 정권장악, 광해군의 외교만이 반정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역사의 원인은 한 가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2판처럼 인조반정의 원인을 복인의 정권독점만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서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초판의 경우 인조반정의 원인에 대해서 비교적 다양한 시각에서 서술 되었지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단순하게 사실만 알 뿐 역사적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광해군의 왕권이 왜 불안정했는지, 무리한 토목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에 대해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과서에서 인조반정의 주요명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 반정의 명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해야한다. 왜냐하면 명분은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것으로써 역사적 사실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1-바>처럼 복인이 광해군의 외교에 가담하여 이에 대한 서인과 남인의 불만이 있었다는 서술은 수정되어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광해군의 외교는 자신의 지지 세력이었던 복인들마저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2. 북벌론

두 차례의 호란에서 조선은 굴욕을 맛보았다. 임금이 인조는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의 예에 따라 항복을 하였고,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벌론이 대두하였다.

북벌은 청에 소현세자와 함께 인질로 잡혀갔던 봉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하면서 추진했던 것으로, 이에 대해서 초판교과서의 날개 부분에 북벌론이라고 명시한 뒤 “문화가 높은 조선이 문화가 낮은 오랑캐에게 당한 수치를 씻고,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명을 대신하여 복수하자는 주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 실제로 북벌을 시도했다는 시각과 효종이 추진한 군비강화는 왕권강화를 위한 국내정치용이라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대부분 연구자들은 현실적으로 증강된 병력은 수천의 상비군에 지나지 않았고, 군비증강의 중심은 금군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군이었음을 들어 북벌 의지보다 왕권강화에 비중을 두어 해석하고 있다.²³⁾ 그러나 북벌은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효종의 의지대로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효종시기 훈련도감 포수 증강, 어영군의 기병과 대포를 사용하는 부대인 과진군의 증강편성, 황해도 정예기병 별마대(別馬隊)편성 등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²⁴⁾ 따라서 미약하나마 북벌은 추진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교과서 서술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서술이 더욱 이로울 것으로 판단된다.

효종은 재위기간 동안 북벌의 의지가 확고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벌을 꾀하고, 그와 관련하여 군비를 확충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효종 즉위 직후 청의 감시와 내정간섭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²⁵⁾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씩 벗어나 군사력 정비 등 북벌과 관련된 ‘실천’의 단초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은 1652년(효종3) 7월 이후이다. 효종은 관무재(觀武才)와 열병(閱兵)을 실시하고 금군의 강화, 수어청의 재정비, 어영청의 개편, 훈련도감의 확장 등 중앙군 강화를 추진하면서 남방지역의 지방군에

23) 신항수, 「조선후기 북벌론의 실상」, 『내일을 여는 역사』 제19권, 2005, 101쪽.

24) 오종록, 「조선군사력의 실태」, 『조선중기의 정치와 정책』 2004, 167쪽.

25) 한명기, 「조청관계의 추이」, 『조선중기의 정치와 정책』 2004, 291쪽.

대해서도 정비에 착수했다. 또 별마대(別馬隊)와 별포진(別砲陣)을 설치하는 등 전투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했다.²⁶⁾ 이렇게 군비를 확충한 것은 '나선 정벌'이라는 청의 구원 용도로도 활용되었다.

효종은 군비증강을 위해 노비추쇄를 실시했다. 당시 등록된 공노비 19만명 가운데 2만7천명의 신공만이 납부되고 있으므로 나머지 노비들을 찾아 그 신공을 군비로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비추쇄는 당시 향촌사회를 격동시키는 등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노비추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백성들은 농사철에도 산성축조 등의 부역과 군사훈련에 시달리고 있었다. 군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압박은 병자호란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감당하기 힘들었다. 아울러 효종의 무신들에 대한 우대는 문신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²⁷⁾ 그러나 효종은 이러한 불만에도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림들은 효종을 견제하기 위해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이것은 효종의 왕권강화에 대한 도전이었다.

난관에 봉착한 효종의 북벌정책은 1657년 8월 이후 송시열, 송준길 등을 중용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내외의 악조건 속에서도 군비강화를 의연히 추진하고자 하는 효종의 의도에 동의하지 않았다.²⁸⁾

효종이 나름대로 추진하고자 노력했던 북벌은 결국 그가 죽음으로써 실현되지 못했다. 북벌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북벌의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동조세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한계 때문이었다. 북벌은 효종이 죽은 뒤인 숙종시기에 공론화 되었지만 역시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다.

한편, 북벌에 대해서 7차 국사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6) 한명기, 2004, 앞글, 292쪽.

27) 신항수, 앞글, 102쪽.

28) 한명기, 2004, 앞글, 299쪽.

<2-가> 병자호란이 끝나고 청과 군신관계를 맺은 조선은 겉으로는 청에 사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은밀하게 국방에 힘을 기울이면서 청에 대한 복벌을 준비하였다. 효종은 청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던 송시열, 송준길, 이완 등을 중용 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복벌을 준비했다. 그 뒤 숙종 때에도 청의 정세 변화를 이용하여 윤휴를 중심으로 복벌의 움직임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복벌을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

복벌론은 폐전의 책임을 져야 할 처지였던 서인들은 계속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인조는 서인 중 일부 소장파들의 강경한 척화주전론이 청의 침략을 불러들였다고 생각하여 일부 남인을 등용하였다. 이에 서인들은 복벌론을 주장하면서 반대세력들의 진출을 견제하려했던 것이다.²⁹⁾

<2-나>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에 대하여 표면상 사대관계를 맺고 사신이 왕래 하면서 교역을 활발하게 하였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청에 대한 적개심이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복벌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효종은 청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던 송시열, 송준길, 이완 등을 높이 등용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복벌을 준비하였다. 그 후, 숙종 때에도 청의 정세 변화를 이용하여 윤휴를 중심으로 복벌의 움직임이 제기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복벌을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였다.³⁰⁾

<2-가>의 초판과 <2-나>의 2판은 복벌에 대한 내용은 일부를 생략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 차이 없이 서술하였다.

교과서 서술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송시열 등과 함께 복벌을 준비했다는 서술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최근 연구에 의하면 효종시기 복벌추진의 핵심인 군비확충에 대해서 송시열은 결코 동조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효종의 복벌에 대한 의지가 처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 것은 송시열과의 독대가 처음이었다. 효종과 송시열의 독대는 효종이 죽기 3개월 전으로 효종은

29) 2002년 초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115쪽.

30) 2006년 2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103쪽.

이를 통하여 정국운영의 힘을 얻고자 했다. 효종은 송시열에게 10만 병력으로 요동을 공격하면 조선인 포로와 중국인의 봉기로 청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하자, 송시열은 효종의 북벌의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는 당시의 사회불안과 재이(災異)를 근거로 군사력 증강이 갖는 위험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송시열은 원통함을 가슴에 품고 5년이든 7년이든 심지어 20년이 되더라도 힘을 기르고 피차의 강약을 살피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즉 그는 효종의 급진적인 북벌추진을 완곡하게 거부한 것이었다.³¹⁾

교과서에서는 북벌의 추진배경이 청에 대한 적개심에 의한 것으로만 설명되어져 있다. 그런데 북벌은 청에 대한 굴욕을 씻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효종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했던 원인으로서는 추진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병자호란 이후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자신 또한 변칙적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정당성 확보가 시급했을 것이라고 파악된다. 따라서 교과서에서는 북벌의 추진 배경에 청과의 문제 뿐만 아니라 내적 불안요소를 외적인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도 서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 예송논쟁

예(禮)는 질서와 서열을 나타내고 그것을 의식을 통해 확인하는 장치로서 정치체도의 내용을 사회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7세기에 들어와서 예는 양란으로 말미암아 해이해진 신분질서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더욱 중시되었다. 즉 예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도로서 부각되었던 것이다. 예가 치국의 방도로 떠오르면서 예학연구는 깊어지고 각

31) 신항수, 앞글, 104~106 쪽.

학과와 예학의 차이는 전례논쟁으로 표출되었다. 예송은 그 대립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³²⁾

교과서에서는 17세기의 전례논쟁 중 현종시기 예송논쟁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3-가> 현종 때에 효종의 왕위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이 발생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1차 예송에서는 당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2차 예송에서는 꾸준히 세력을 키워 온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서인이 약화되고 남인 중심의 정국이 운영되었다.³³⁾

<3-나> 예송: 예송은 차남으로 왕위에 오른 효종의 정통성과 관련하여 1659년 효종의 사망 시 (기해예송)와 1674년 효종비의 사망 시(갑인예송)에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이때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의 복제(服制)가 쟁점이 되었다. 서인은 효종이 적장자(嫡長子)가 아님을 들어 왕과 사대부에게 동일한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1년설과 9개월설을 주장 하였고, 남인은 왕에게는 일반 사대부와 다른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3년 설과 1년 설을 각각 주장하여 대립하였다.³⁴⁾

<3-다> 현종 때에 효종의 왕위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이 발생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었다.³⁵⁾

<3-라> 예송: 효종과 효종비가 죽은 후, 새 어머니였던 인조의 계비가 적장자에 준하는 상복을 입을 것인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이다. 차남으로 왕위를 이은 효종의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심각한 정치적 논쟁으로 발전하였다.³⁶⁾

32) 고영진, 「성리학과 실학」, 『새로운 한국사길잡이 상』, 2008. 503쪽.

33) 2002년 초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107쪽

34) 2002년 초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106쪽, 도움글

35) 2006년 2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99쪽.

<3-가>와 <3-나>는 초판에, <3-다>와 <3-라>는 2판에 각각 서술된 부분이다. 이들을 비교해보면 초판이 2판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보인다. 초판의 경우 2판에 비해 상세히 서술되었지만 단순히 사실만 나열할 뿐 예송논쟁이 지니는 시대적 의미나 가치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상복을 몇 년 입었는지가 왜 문제가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질서와 서열을 나타내고 그것을 의식을 통해 확인하는 장치로서 정치제도의 내용을 사회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예의 개념을 명시하지 않아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송논쟁을 설명한다면 예송논쟁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유교에서는 왕통(王統)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사회조직의 기초인 가족에는 가통(家統), 종족에는 종통(宗統), 왕족에는 왕통(王統), 사제관계에는 학통(學統)이 중시되었다. 개인보다 공동체유지·강화를 위하여 이러한 계통(系統)의 식은 역사적으로 면면히 강조되어 왔다. 이 중 혈통에 바탕을 둔 가통(家統)과 왕통(王統)은 엄격한 종법에 의하여 확립되어 왔다.³⁷⁾

조선은 본래 왕실에서 행해지는 예와 사대부에서 행해지는 예가 서로 달랐다. 그래서 조선전기 왕위계승을 보면 사실상 장자가 아닌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17세기에 들어와서 이와 다른 양상이 전개되었다. 그것은 반정에 의해 왕위에 오른 인조가 자신이 할아버지 선조의 아들로 위치가 규정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강권으로 친아버지인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송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왕실에서 행해지는 왕실례의 특수성이 부정되고 왕실에서나 사대부에서 행해지는 예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 실현됨으로써 전례문제의 혼란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사정에서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던 것이었다. 당시 예론에서 특히 왕실의 상복문제는 왕의 정통성문제와 직결되어

36) 2006년 2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99쪽, 날개글

37) 이성무, 「17세기 예론과 당쟁」,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1992, 12-14쪽.

있어 권력투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다. 그 논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었다. 그런 만큼 상복문제는 당파 간에 심각한 논쟁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³⁸⁾

현종 때 두 차례의 예송은 자의대비가 효종과 효종비의 상에 입을 복제를 두고 일어난 것이다. 1차 예송(기해예송)은 효종이 승하하면서 그를 위해 자의대비 조씨가 입을 복제에 적용할 만한 조항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실려 있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게 되었다. 먼저 대신과 송준길·송시열의 수의(收議)가 있게 되었던바 대신들이 ‘시왕지제(時王之制)’인 기년복(基年服)을 주장하자 송준길·송시열도 “고금의 예율(禮律)이 이동이 있고, 제왕의 제도는 더욱 가볍게 의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찬동하여 기년제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대상(大喪) 당시 이미 의례자 중 ‘차장설(次長說)’과 ‘위군참설(爲君斬說)³⁹⁾ 등 삼년설 주장자가 있었는데, ‘위군참설’은 윤희의 주장이었다.⁴⁰⁾ 송시열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발로 『의례주소(儀禮注疏)』의 4종설을 주장하였다.⁴¹⁾ 그러나 이러한 의견 대립은 문제시되지 않았다.⁴²⁾

예송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효종의 소상(小祥)을 두 달 앞두고 허목이 복제 개정을 상소하면서부터이다. 여기서 그는 『의례』의 “제 1자(第一子)가 죽으면 적처소생의 제2장자(第二長子)를 후사로 세우고 또한 장자라고 부른다.”라는 구절을 근거로 하여 효종을 인조의 장자로 단정하고, 자취(薺衰) 삼년장의 ‘모위장자(母爲長子)조(條)에 의해 대비의 복을 자취(薺衰) 삼년으로

38)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아름다운날, 2007, 270-271쪽.

39) 윤희는 장자를 위해서는 상·하 구분 없이 삼년복을 입으며, 임금을 위해서는 내·외종(內·外宗 : 동성·이성의 여자친척)이 다 참취(斬衰: 가공하지 않은 마로 만든 상복, 3년)를 입는다고 했다. (이영춘, 「봉당정치의 전개」, 『한국사30: 조선중기의 정치와 경제』, 1998, 102쪽.)

40) 김세봉, 「예론의 전개와 그 양상」, 『조선중기 정치와 정책』, 2004, 213-214쪽

41) 4종설이란 ① 적자로서 병 때문에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경우 ② 서손이 뒤를 이었을 경우 ③ 서자가 뒤를 이었을 경우 ④ 적손이 뒤를 이었을 경우에는 그 부모가 3년복을 입지 않고 1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시열은 그중 효종은 ③ 서자가 뒤를 이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체이부정(體二不正)이라는 말로 규정되었다. (이성무, 2007, 앞글, 268쪽.)

42) 당시의 영상 정태화는 4종설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이 갖는 정치적 위험성 때문에 이를 문제의 소지가 없는 국제 적용선상에서 매듭지려고 하였고, 송시열도 대명률의 복제도 국제와 같음을 들어 정태화의 의견에 찬의를 표하였다. (김세봉, 앞글, 214쪽.)

보았던 것이다.⁴³⁾ 그는 송시열이 4종설의 서자(庶子)를 중자(衆子)로 보는 것과는 달리 첩자(妾子)로 해석하여 효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허목의 상소로 야기된 예송은 송시열·송준길의 반박으로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선도는 허목에 의해 조심스레 개진된 종통문제를 전면에서 부각시키는 한편 송시열·송준길에 대한 강도 높은 인신공격을 감행하여 파란을 일으켰다. 윤선도는 자취(齋衰)삼년복의 실시여부를 종사와 존망과 관련지어 복제론을 왕통의 인정 여부로 물고 갔다. 송시열과 송준길이 효종의 정통성을 인정치 않는다는 그의 주장은 송시열과 송준길을 위시한 서인측을 극도로 자극하였다. 그의 상소는 서인 측에서 고변서로 간주되었고 그가 예론을 빌미로 사화를 조장한다고 보았던 것이다.⁴⁴⁾ 윤선도의 상소로 빚어진 파장은 복제논의에서 국제(國制) 적용 쪽으로 공의가 모이는 계기가 되었다. 원두표의 요청에 의해 이유태·허후·윤선거·윤휴 등 산림에게도 논의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 윤선도의 상소는 그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예론논의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었다. 결국 대신들의 기년복 실시 재확인 절차를 거쳐 5월에 연제(練祭)를 행함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다.⁴⁵⁾

1차 예송에서 최대의 파란을 일으킨 윤선도의 상소는 남인들의 집단적 의사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소가 일으킨 물의는 곧 당론이라는 집단적 형태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 소로 인해 미증유의 정치적 위협을 느낀 서인들은 이론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윤선도를 중형에 처하고자 하였다. 이 처사를 부당하게 생각한 남인들, 즉 권시·조경 등이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그를 변호·구원하고 기년설의 오류를 논변하다가 처벌되었다. 이 문제는 또한 조관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성균관 및 지방유생들에게까지 격론을 유발시켰다.⁴⁶⁾

43) 이영춘, 앞글, 103-104쪽.

44) 김세봉, 앞글, 254쪽.

45) 김세봉, 앞글, 223쪽.

46) 이영춘, 앞글, 111쪽.

2차 예송(갑인예송)은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의 상에 자의대비가 입을 상복을 두고 일어난 사건으로서 그 논쟁의 구조나 원리는 1차 예송과 같았으나, 전자에서와 같이 본격적인 서인 대 남인의 쟁송으로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2차 예송은 영남 유생 도신징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만 1차 예송의 주역들인 남인들은(허목·윤선도·권시 등)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⁴⁷⁾

2차 예송의 발단은 예조에서 국제의 장자부복(長子婦服)조에 의거하여 기년복으로 정하였다가 박세당이 기해복제(己亥服制) 시 송시열의 의향과 큰 차이가 있고 중자부복(衆子婦服)이 합당하다고 함에 따라 대공복(大功服:9개월복)으로 고치게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갑작스런 복제 변경은 현종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하였고, 도신징의 상소는 촉매제의 구실을 하였다.

현종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곤란을 겪게 된 서인측은 기해복제가 당초 국제로 정해졌지만 이후 제신 간에 고례를 가지고 쟁론한 후 기년제가 행해졌기 때문에 중외의 사람들은 모두 고례(古禮)의 중자복(衆子服)을 따른 것으로 여겼다고 변론을 하였다. 그러나 현종은 조정에서 정한 조치에 대해 우선하지 않는 그러한 인식 자체에 불만이 있었고, 결국 이러한 견해차로 말미암아 기해예송을 재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해복제의 재론은 4종설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인 측 관료들이 “서자(庶子)를 장자와 구별하는 의미의 중자”임을 들어 효종이 중자임을 부각시키고자 한 반면 현종은 제2장자도 또한 장자임을 들어 이를 반박하였다. 현종은 인선왕후의 복제를 당초대로 국제에 따라 기년제로 정하도록 강권을 발동하였다.⁴⁸⁾ 이에 따라 송시열 일파의 서인세력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2차 예송은 예학적 논쟁으로서의 의의보다 그 정치적 의미가 중요한 사건이었다. 2차 예송 당시 현종의 뒤에는 김우명·김석주 등의 청풍김씨 외척과 북창군(福昌君) 등의 종실측근이 지원하고 있었고, 빈청의 제신들은 대부분

47) 이영춘, 앞글, 113쪽.

48) 현종은 선왕을 체이부정(體二不正) 이라고 한 데에 대해 선왕을 박하게 대접한 것으로 보았다. (김세봉, 앞글, 230-232쪽.)

송시열의 문인이었거나 그 추종자들이었다. 청풍김씨 일가는 기해예송 때부터 허목·윤휴 등의 설을 쫓아 '효종적장자설'을 고수하고 있었고 의례에 참여한 신하들은 양송의 증자설(衆子說)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들 두 집단의 논쟁은 예학적 견해의 대립이었다기보다, 오래전부터 갈등관계에 있었고 이 무렵에 표면화된 정치투쟁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⁴⁹⁾ 2차 예송 이후 송시열 일파의 서인주류가 몰락하고 청풍김씨 일가는 허적 등의 남인들과 손을 잡고 연립정권을 성립하였다.

이상 예송논쟁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특히 교과서 초판에 “2차 예송에서는 꾸준히 세력을 키워 온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서인이 약화되고 남인 중심의 정국이 운영되었다.”라고 하는 서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예송논쟁에 대한 현 단계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분석해보았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의 역사인식 수준에서 이러한 예송논쟁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

예송논쟁은 앞서 설명했듯이 그동안 유지되고 있었던 왕실례의 특수성이 왕실례와 사대부례가 동등하다고 보는 보편성과 대립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왕실례의 특수성은 곧 국왕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당시에는 국왕의 초월성이 얼마나 인정되는가에 따라 정권의 향배가 결정될 수 있다. 남인들은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정계에 진출하려면 왕권이 매우 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반면 서인세력들은 일반적으로 왕실례와 사대부례가 동등하다는 보편적 입장에 있었다. 이들은 왕권이 강화되는 것보다는 보편성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역사적 판단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예송논쟁을 고등학생들에게 설명할 때에는 왜 상례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정도의 수준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49) 이영춘, 앞글, 114쪽.

IV. 연구 성과에 의한 교과서 서술내용의 보완

정치사에서 사건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7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인조반정, 북벌론, 예송논쟁 부분의 서술 분량은 매우 적은 편이다. 게다가 그 내용도 흩어져 있어 학생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들 내용을 각각 살펴보면 대체로 단순한 사실만 나열하여 역사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역사교육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교과서 서술이 하나의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보여 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IV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각각의 주제에 따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인조반정

인조반정은 서인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상호비판적인 공존체제'와 관련하여 역사적 의미를 찾고 있다. 물론 공존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만 상호비판과 견제가 이루어 질 정도로 서인과 남인이 대등한 세력을 보이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들 세력들이 공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의 득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인 '상호비판적인 공존체제'라는 서술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인조반정의 계기로 쫓겨난 광해군은 계속되는 연구 성과에 따라 재평가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교과서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광해군의 업적에 대해서 국내정치보다는 외교에 비중을 둔 서술을 보이는데 이것은

그만큼 외교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내정치에 대한 부분은 너무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외교에서 '중립외교'라는 용어는 수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은 청과 명에 대해서 대등한 입장이 아니었고 지나치게 한쪽편만 들지 않는 교묘한 처사를 보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줄타기 외교'나 '실리외교'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인조반정의 원인에 대해서 광해군시대가 갖는 정치적 한계는 교과서 초판이 2판보다 자세히 서술하고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단순 사실만 나열하고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여 광해군시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교과서는 반정의 주요명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명분은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것으로써 역사적 사실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개선을 도모해 보았다.

<p>☒ 인조반정</p> <p>광해군은 왕위에 오른 뒤 왜란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어루만지고 무너져 내린 국가의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광해군 초반 붕당의 대립이 선조 때 보다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당색이 아닌 여러 인재를 고루 등용하여 정국을 안정시켜나갔다. 정국이 안정된 상황에서 양안과 호적을 새로 작성하여 국가의 통치기반인 토지와 백성을 다시 파악하고, 황폐한 토지를 복구하여 농업을 다시 일으키는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대동법을 일부지역에 시행하고 『동의보감』을 편찬하여 전쟁 후 기근과 질병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도왔다.</p> <p>대외적으로는 당시 날로 급격히 성장하는 후금에 대해 인식하고 명과 후금 사이의 줄타기 외교를 진행하였다. 임진왜란 때 명의 도움을 받은 조선은 명의 후</p>	<p>☞ 회퇴변척(悔退辨斥)</p> <p>1610년 김평필 · 정여창 · 조광조와 아울러 이언적 · 이항의 위패가 공자의 사당인 문묘에 모셔지게 되자, 정인홍이 상소하여 이언적과 이항을 비난한 사건을 말한다. 정인홍이 이언적과 이항을 비난하고 나선 데에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당시 문묘에 봉사된다는 것은 성리학의 학문과 도덕에서 큰 권위를 갖춤을 의미했다. 복인의 정신적 지주인 조식이 제외되고 조식과 동갑이자 남인의 정신적 지주인 이항이 종사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복인이 남인에 비해 열세에 놓이리라는 것을 의미</p>
---	--

금 공격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새롭게 성장하는 후금과 적대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이에 광해군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1만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명을 지원하게 하되,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명령하였다. 결국 조·명연합군은 후금군에게 패하였고 강홍립 등은 후금에 항복하였다. 이후에도 명의 원군 요청은 계속되었지만 광해군은 이를 적절히 거절하면서 후금과 친선을 꾀하는 외교를 취하였다.

그러나 광해군이 적통대군이 아닌 후궁의 둘째아들이라는 점은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는 패륜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리한 궁궐공사를 진행하여 민심마저 잃게 되었다. 또한 광해군의 외교는 의리와 명분이 팽배했던 조선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광해군의 지지 세력이자 소수 세력이었던 북인은 **회퇴변칙**과 은상살해사건의 조작 등을 토대로 정권을 독점하자 정권에서 배제된 서인과 남인의 불만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광해군과 북인은 서인과 능양군(훗날인조)이 주도한 인조반정으로 몰락하였다. (1623) 반정을 주도한 서인은 남인 일부와 연합하여 정국을 운영해나갔다. 이것은 서인들이 반정의 원인으로 북인의 정권독점을 지목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존이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의 주도권만은 서인이 가졌고, 이는 앞으로 조선 중·후기 정치를 이끌어가는 바탕이 되었다.

<생각해봅시다!!> 인조반정의 명분은 무엇일까?

적신 이이첨과 정인홍 등이 악행을 부추겨 형(임해군)을 해치고 아우(영창대군)을 죽이고 조카(능창군)를 도륙하는 등 여러 차례 큰 옥사를 일으켜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다. 또 대비를 서궁에 유폐하는가 하면, 의리로는 곧 군신이며 은혜로는 부자와 같은 명에 대해 배은망덕하여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 성의를 베풀었다. 이에 인조가 윤리와 기강이 이미 무너져 종묘사직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반정을 도모했다.

- 『인조실록』 권1, 1년 3월 갑진-

본문내용에서 다루어진 광해군시대의 정치는 기존 서술이 분류사 체제에 따라 흩어져 있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아래 아래 묶어 서술했다. 그리고 부족했던 국내정치부분을 좀 더 보완하였다.

인조반정의 원인이자 광해군시대의 정치의 폐단으로 지목되었던 왕권의 불안정, 복인세력의 정권독점에 대해 기존에는 단순히 사실만 나열하여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이유가 보이지 않았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처럼 이유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 이 부분을 고려하여 서술했다. 그리고 복인세력의 정권독점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회퇴변칙인데 용어상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날개부분에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인조반정의 결과를 기존 '상호비판적인 공존체제'를 사용했는데, 이는 잘못된 서술이라 판단되어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공존이 가능하게 된 이유를 중심으로 당시 정치적 상황을 서술했다.

인조반정의 명분은 인조반정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다뤄져야 하는데 <생각해봅시다!!>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다.

2. 북벌론

북벌론은 인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효종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문화가 높은 조선이 문화가 낮은 오랑캐에게 당한 수치를 씻고,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명을 대신하여 복수하자는 주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북벌론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효종이 북벌을 실제로 추진했다는 시각과 국내정치용이었다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자들은 현실적으로 증강된 병력은 수천의 상비군에 지나지 않았고, 군비증강의 중심은 금군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군이었음을 들어 북벌의지보다 왕권강화에 비중을

두어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북벌은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효종의 의지대로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효종시기 훈련도감 포수 증강, 어영군의 기병과 대포를 사용하는 부대인 파진군의 증강편성, 황해도 정예기병 별마대(別馬隊)편성 등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교과서서술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서술을 추가한다면 더욱 이로울 것으로 판단된다.

교과서에서 북벌추진에 있어서 송시열 등의 산림들이 여기에 동조하여 함께 했다고 서술했는데, 최신 연구에 의하면 송시열은 효종이 추진하는 군비확충에 반대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서술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북벌의 추진배경에 있어서 청에 대한 적개심에 의한 것으로만 설명되어져 있다. 그런데 북벌은 청에 대한 굴욕을 씻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효종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요인으로서 추진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교과서에서는 북벌의 추진 배경에 청과의 문제 뿐만 아니라 내적 불안요소를 외적인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도 서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서술을 개선해 보았다.

☒ 북벌론

인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효종은 청의 견제가 심한 상황에서도 군비확충을 통한 북벌의 의지를 내세웠다. 물론 북벌에 대한 공론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금군을 강화, 수어청의 재정비, 어영청의 개편, 훈련도감의 확장 등 중앙군 강화를 추진하면서 남방지역의 지방군에 대해서도 정비에 착수했다.

그가 북벌을 추진한 것은 청에 대한 복수이자 호란 이후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이유였다. 게다가 변칙적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의

☒ 북벌론

문화가 높은 조선이 문화가 낮은 오랑캐에게 당한 수치를 씻고,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명을 대신하여 복수하자는 주장이다.

지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북벌 추진은 백성들이 농사철에도 산성축조 등의 부역과 군사훈련에 시달리게 하였고, 군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압박은 병자호란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감당하기 힘들었다. 아울러 효종의 무신들에 대한 우대는 문신들의 불만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벌 추진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효종이 죽자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북벌은 이후 숙종 시기에 공론화되었지만 역시 실패했다.

<생각해봅시다!!> 북벌은 실제 추진되었는가? 아니면 국내정치용이었던가?

역사학계에서는 북벌에 대하여 실제로 북벌을 시도했다는 시각과 효종이 추진한 군비강화는 왕권강화를 위한 국내정치용이라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전자를 지지하는 학자는 효종시기 훈련도감 포수 증강, 어영군의 기병과 대포를 사용하는 부대인 파진군의 증강편성, 황해도 정예기병 별마대 편성 등을 근거로 삼아 추진 하였다고 보는 반면 후자를 지지하는 학자는 현실적으로 증강된 병력은 수천의 상비군에 지나지 않았고, 군비증강의 중심은 금군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군이었음을 들어 북벌의지보다 왕권강화에 비중을 두어 해석하였다.

우선 날개부분에 북벌론에 대한 설명은 기존 교과서에 다루었던 내용을 그대로 살렸다. 그 이유는 북벌론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앞으로의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본문내용은 북벌을 추진했다는 입장에서 서술되었다. 그러나 현재 학계에서 북벌이 실제 추진되었다고 보는 것과 국내정치용이라고 보는 것이 대립하고 있다. 본문내용이 집필자의 관점에 따라 서술하였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또 다른 역사적 인식을 알려 폭넓은 역사인식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생각해봅시다!!> 부분에 북벌론에 대한 현재의 학계의 입장을 서술하였다.

3. 예송논쟁

예(禮)는 질서와 서열을 나타내고 그것을 의식을 통해 확인하는 장치로서 정치체도의 내용을 사회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예의 기능을 예송논쟁을 설명하기에 앞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입장에서 당시 사회에서 예가 왜 중요했는지를 알아야 예송논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송논쟁에 대해서 초판에 비해 2판에서는 서술 분량이 더 줄어들어 예송논쟁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떠한 상복을 입는가의 차이가 어떤 정치적 인식의 차이와 관련되는지 알 수 있도록 서술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2차 예송 때 남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서인이 약화되고 남인 주도의 정국을 형성했다고 하는데 최신 연구에 의하면 2차 예송은 1차 예송과 달리 현종, 서인인 김석주 등 외척세력, 송시열 중심의 서인세력들 간의 정쟁이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서술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교과서 서술 개선을 도모하였다.

☒ 예송논쟁

17세기에 들어와서 예는 양란으로 말미암아 해이해진 예적질서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더욱 중시되었다. 즉 예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도로서 부각되었던 것이다. 예가 치국의 방도로 떠오르면서 예학연구는 깊어지고 각 학파의 예학의 차이는 전례논쟁으로 표출되었다. 두 차례의 예송은 그 대립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1차 예송(기해예송)은 효종이 승하하면서 자의대비

☒ 예 (禮)

예는 질서와 서열을 나타내고 그것을 의식을 통해 확인하는 장치로서 정치체도의 내용을 사회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강권으로 친아버지인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송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왕실에서 행해지는 왕실례의 특수성이 부정되고 왕실에서나 사대부에서 행해지는 예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 실현됨으로써 전례문제의 혼란을 야기 시켰다. 특히 왕실례의 특수성이 부정된다는 점은 국왕이 지니는 초월적 위치가 부정된다는 것으로 당시에는 커다란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던 것이었다.

당시 예론에서 특히 왕실의 상복문제는 왕의 정통성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권력투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다. 그 논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었다. 그런 만큼 상복문제는 당파간에 심각한 논쟁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중통: 최고 통치자에서 일반 백성에 이르는 상하의 신분질서를 가부장적 혈연관계로 제도화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것

*추송: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이에게 임금의 칭호를 주던 일.

우선 날개부분에 예에 대한 개념을 서술하여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예송논쟁의 전개과정이 복잡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왕실가계도를 그려 설명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예송논쟁은 고등학생들의 역사인식 수준에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본문내용도 당색에 따른 복잡한 설명을 되도록 자제하려고 했다. 다만 고등학생들 수준에서는 왜 상례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정도의 수준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생각해봅시다!!> 부분에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조선 17세기정치를 이끈 주요 사건 내지 쟁점인 인조반정, 북벌론, 예송논쟁을 중심으로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서술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서술개선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우선 7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인조반정, 북벌론, 예송논쟁의 서술 체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치사에서 사건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이를 소홀이 다루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 사건 들은 하나의 주제아래 묶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으로 인조반정, 북벌론, 예송논쟁에 대한 현 단계까지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하여 교과서 서술내용을 분석하였다. 인조반정은 서인세력들이 이후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교과서에서는 인조반정의 결과 서인과 남인이 '상호비판적인 공존체제'를 이루었다고 하였는데 나름대로 공존은 가능했을지 몰라도 상호비판적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남인이 서인정도의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세력들이 공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의 득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인 '상호비판적인 공존체제'라는 서술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조반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광해군시대의 정치를 살펴보면 결코 무능했던 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교과서에서는 광해군시대의 정치에 대해서 국내정치보다는 외교에 비중을 크게 두어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정치 부분이 너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어서 서술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외교에 대해서도 중립외교라는 말은 광해군시대의 외교상황과 거리가 먼 용어이므로 줄타기외교나 실리외교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인조반정의 원인과 관련하여 광해군시대가 갖는 정치적 한계는 교과서 초판이 2판보다 자세히 서술하고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단순 사실만 나열하고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여 광해군시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교과서는 반정의 주요명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명분은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것으로써 역사적 사실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북벌론은 문화가 높은 조선이 문화가 낮은 오랑캐에게 당한 수치를 씻고,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명을 대신하여 복수하자는 주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실제로 북벌이 추진되었다는 시각과 국내정치용이라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교과서 서술의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서술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북벌의 추진배경을 청에 대한 적개심에 의한 것으로만 설명되어져 있다. 그런데 북벌은 청에 대한 굴욕을 씻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효종 자신의 왕권강화의 요인으로서 추진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교과서에서는 북벌의 추진 배경에 청과의 문제 뿐만 아니라 외적인 전쟁을 통해서 내적불안요소인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도 서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두 차례의 예송논쟁은 현종 때 자의대비가 효종과 효종비의 상에 입을 복제를 두고 일어난 것이다. 예송논쟁에 대해서 초판교과서에 비해 2판교과서에서는 간략히 서술하여 예송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 초판교과서는 2판교과서에 비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지만 예송논쟁이 있었다는 정도의 사실 나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상복을 몇 년 입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서술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예송논쟁을 설명하기에 앞서 예(禮)의 개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예의 개념을 알아야 예송논쟁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서술이 보완되어야 한다. 게다가 교과서에서 2차 예송 때 남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서인이 약화되고 남인 주도의 정국을 형성했다고 하는데 최신 연구에 의하면 2차 예송은 1차 예송과 달

리 현종, 서인인 김석주 등 외척세력, 송시열 중심의 서인세력들 간의 정쟁이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서술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서술개선은 종합적인 서술을 지향하고 역사적사고력과 설득력 있는 내용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즉 흩어져 있던 내용을 하나의 주제 아래 묶어 서술했고, 역사적사고력을 위해 인과관계적인 서술을 지향했으며, <생각해봅시다!!>라는 것을 만들어 학생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설득력 있는 내용구성을 위해 최신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한 시대에 허용되는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들은 그 시대를 아우르는 공통된 시대적 의미와 성격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건의 인과관계, 서로간의 관련성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사가 전근대사회에서 그 시대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때 사건은 그 중심이기 때문에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려면 우선 국사교과서의 서술이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고 그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단순히 이러한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각 개별 사건들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련성,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인조반정, 북벌론, 예송논쟁에 대한 서로의 관련성을 찾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인조반정이 내세운 명분에는 폐모살제와 친명배금이 있다. 이중에 특히 친명배금은 상국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 아래 양반층 대부분이 공감하였다. 친명배금의 논리는 양반사족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올 존재이므로, 국정을 잘못 수행하였더라도 그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대부분의 양반사족들이 공감하였고, 이러한 사정에서 북벌론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예송논쟁은 이와 달리 국왕의 초월성을 인

정 할 것인가와 인정하지 말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나타난 사건이었다. 즉 붕당의 사상, 행동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나타났으며, 여기에 서인과 남인의 갈등, 서인 내부 안에서의 갈등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17세기 정치사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붕당정치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이 당시의 역사를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17세기 정치를 충실히 교육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가 제시한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세 사건을 통해, 붕당정치의 논리만으로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사』, 두산, 2002.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국사』, 두산, 2006.

《저서》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아름다운날, 2007.

정선영 외 3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7.

최상훈 외 3인,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 함께, 2009.

한명기, 『광해군』, 역사비평사, 2007.

《논문》

고영진, 「성리학과 실학」, 『새로운 한국사길잡이 상』, 2008.

김돈, 「조선후기 당쟁사 연구현황과 국사교과서의 서술방식」, 『역사교육』 제 39권, 1986.

김돈, 「조선시대 정치사연구와 국사교육」, 『역사교육』 제 85권, 2003.

김세봉, 「예론의 전개와 그 양상」, 『조선중기 정치와 정책』, 2004.

신향수, 「조선후기 북벌론의 실상」, 『내일을 여는 역사』 제 19권, 2005.

오수창, 「인조반정과 서인정권의 논란」, 『한국전근대사의 주요 쟁점』, 2008.

오수창, 「봉당정치의 성립」, 『한국사30; 조선중기의 정치와 경제』, 1998.

- 오종록, 「광해군 시대의 교훈」, 『내일을 여는 역사』 제 5권, 2001.
- 오종록, 「조선군사력의 실태」, 『조선중기의 정치와 정책』 2004.
- 이성무, 「17세기 예론과 당쟁」,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1992.
- 이영춘, 「붕당정치의 전개」, 『한국사30; 조선중기의 정치와 경제』, 1998.
- 이재철, 「조선 후기 정치사의 연구동향과 고교 국사교과서의 서술: 5~6차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67권, 1998.
- 한명기, 「조청관계의 추이」, 『조선중기의 정치와 정책』, 2004.

Abstract

A Study of the Middle Era of Joseon Dynasty's Political History for High-School Students - Focusing on 17th century-

Lee, Young-il

Dept. of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A textbook is basic for teaching and learning by organizing, which is in the learning course, in order to achieve student's learning goals. The textbook differs from academic or public books because it is basically produced by regular leaning courses. Therefore, the textbook doesn't have an author's opinion. It just includes standard point that the government makes. This means that it is open to dispute that students receive a standardized education under the control of the learning course from politics. However, the system of historical knowledge is edited more easily, clear, and simple in a textbook. As a matter of fact, it is useful at school because it is hard to teach the systematic historical truths in such a short time. In this case, trying to suggest an alternative to overcome some problems in text books is more important than finding new substitution resources.

I try to focus on the analysis of the narration method in the Seventh

Curriculum's national history book for current high-school students, and then I seek for a solution to better the way the writers narrate. The main political events in the 17th century Joseon Dynasty, King Injo Restoration(仁祖反正), Plan of an Expedition to Conquer the North(北伐論), Argument of Yesong(禮訟論爭) are the main focus of study.

When we evaluate politics in the 17th century Joseon Dynasty, in the years from Injo to Hyeonjong they were able to maintain a high public opinion for Seo-In(西人) and Nam-In(南人). King Injo Restoration is a prelude to the main event in the 17th century Joseon Dynasty, and an Argument of Yesong is the representative issue on public opinion. The plan of an Expedition to Conquer the North also has an important historical meaning that politicians try to keep again.

Their justification of King Injo Restoration, which is that Joseon must maintain friendly relations with Myeong but it could exclude Geum ,and faded due to Manchu.(親明排金) First, I checked the system of narration about King Injo Restoration, Plan of an Expedition to Conquer the North, and an Argument of Yesong. Although those are really important parts of the political history, they are neglected in the Seventh Curriculum's national history book. Besides, all of the content is spread in whole book so we need to collect it into one category.

Secondly, I analyzed the contents of narration in the textbook. The analysis is based on current research on King Injo Restoration, Plan of an Expedition to Conquer the North, and Argument of Yesong. After my investigation on each of them, we recognized that every topic is now listed in less detail. It's not as good at achieving historical education goals, such as, inquiring historical thinking. In addition, even the textbook looks like a more

persuasive interpretation; it must have a more detailed explanation. Despite including persuasive reasoning, it doesn't have enough content to explain the important event. In this case, we need to aim for an overall narration to help to enlarge historical thinking for students, and make more persuasive content. In other words, I attempt to gather and spread information into one category, I also aim to narrate cause-and-effect in order to improve historical thinking, and to give more opportunities to reflect on what they learned by creating a section called "Let's Think!!". Moreover, I will explain history in more detail by making more persuasive content, based on the latest research.

All of the events that occurred in history are a useful method to understand the mood, and meaning of their activity at the same period, because being able to see the cause-and-effect and relationships between events are a good way to understand historical events. Most of the historical events are related to politics, and it offers a view for students, to study synthetically so politics should be treated with more importance especially in textbooks. If we want to teach students about historical facts correctly, the national history books must be organized according to causes-and-effects. It should also be examined to find value and meaning through the events. After the problems of the text books are solved, teachers will teach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event not on case-by-case basis.